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www.wandoexpo.com
2017 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
2017. 4. 14(금) ▶ 5. 7(일) 24일간 완도항과 해변공원 일원
2017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4. 1(토) ~ 4. 30(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463호 1판 (음력 3월 1일)
2017년 3월 28일 화요일

호남의 선택은 문재인…대선가도 ‘날개’ 달았다

‘선택 2017’ 대선 D-42

민주당 대선 호남 경선 60.2% 득표로 압승

“정권교체 이뤄내 호남의 기대에 부응”

안희정 20%·이재명 19.4%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

“정권교체 꼭 이루겠습니다” 27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문재인 후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변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대첩’의 승자는 ‘대세론’을 앞세운 문재인 후보였다. 〈관련기사 3·4·5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60%의 득표율을 올리며 압승했다. 문 후보는 야권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의 민심을 확인함으로써 ‘대세론’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 등은 경선 판도를 가늠할 중요 승부처였던 호남권 경선 승리를 위해 그동안 화력을 총 집중했지만, 결국 ‘文 대세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문 후보는 27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제19대 대선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경선 결과 총 유효투표수 23만6358표 가운데 14만2343표(득표율 60.2%)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안희정 후보는 4만7215표(20%), 이재명 후보는 4만5846표(19.4%), 최성 후보는 954표(0.4%)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결과는 지난 22일 치러진 전국 투표소 투표 중 호남지역 경선인단과 지난 25～26일 진행된 호남권 ARS투표, 이날 호남권 순회경선 대의원투표 결과를 합산한 것이다.

문 후보는 현장 투표소 투표와 ARS투표, 순회투표 등 모든 경선에서 압승하며 과반을 훌쩍 넘겼다. 가장 선거인단이 많았던 ARS투표에서만 59.9%로 60%를 넘기진 못했지만, 대의원 투표에서 75.0%, 투표소 투표에서 65.2%를 얻었다.

문 후보는 경선 승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좋은 후보들과 경쟁 속에서 기대 밖의 아주 큰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면서 “압도적 지지를 모아주신 광주시민을 비롯한 전남·전북도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 경선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호남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선을 앞두고 지지율과 인지도에서 앞서는 문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안희정·이재명 후보의 막판 추격전이 만만치 않아 문 후보의 과반 득표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특히 호남권이 첫 경선인데다, 호남 선거인단만 전체 214만 3000여명 가운데 38만여명(18%)으로 전국 인구와 대비해 비중이 큰 만큼 모든 후보들이 호남에 총력을 기울이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그러나 호남 경선결과 문 후보로의 쏠림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경선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경선 1라운드이자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향후 남은 세 차례(충청-영남-수도권 등) 순회 경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대세론을 굳힐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날 호남권 순회경선은 사실상 ‘본선 같은 예선’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세 대결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 결과가 이후 전체 경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무대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는 주자들의 연설에서는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월호 마지막 항해 30일 목포신항으로

목포 추모 분위기 확산

세월호가 오는 30일 진도 사고해역에서 목포신항으로 마지막 항해를 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안 해수 배출과 배 안에 남아있는 기름 제거 등의 작업을 마친 뒤 30일을 전후해 목포신항으로 이동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해수부는 전날 오후부터 진행된 와이어 66개를 이날 모두 제거했다. 또 목포신항으로 이동 중에 세월호가 움직이지 않도록 반잠수식 선박과 선체를 고정하는 고박작업에 들어갔다. 29～30일 반잠수식 선박의 날개탑을 제거하면 이동 준비는 끝난다.

세월호는 30일 전후 목포신항으로 출발해 시속 18㎞로 이동한다. 목포신항까지의 항해 거리는 105㎞로 8시간가량 걸릴 전망이다. 목포신항 거치 작업은 5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다음달 4일이면 세월호는 목포신항에 거치될 전망이다.

한편 세월호를 맞을 목포지역은 추모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목포시는 다음달 8～9일로 예정된 유달산 축제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월호 추모에 적극 동참하고 행정력을 세월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최진석의 ‘노장적 생각’ ▶18면

광주의 딸 이미림
LPGA KIA 클래식 우승 ▶20면

‘파면 1호’ 박근혜 구속 문턱에 서다

檢,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

30일 실질심사…31일 새벽 결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2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오전 11시26분께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작년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부터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가 담당하며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017
PINK RUN
핑크런 광주대회
핑크리본사랑마라톤에서 핑크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5.14.(일요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
기념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런 사무국 (1688-9744)
참가신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www.pinkcampaign.com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사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MBC, KBC광주방송, KBS광주방송총국
A MORE BEAUTIFUL WORLD
20 by 20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